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2024 의원 공무국외 연수 보고서

2024. 1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연수대표 임성화]

# 목 차

---

I. 연수 개요 .....	3
II. 연수 내용 .....	5
1. 시아와세노무라 .....	7
2. ATC 에이저리스 센터 .....	12
3. 마이시마, 요코하마 소각장 .....	16
4. 구로몬 시장 .....	25
5. 돈다바야시 .....	29
6. 요코하마YMCA .....	32
7. 하모니히로사와 .....	34
III. 연수 소감문 .....	40

# - 기후위기 대응, 도시계획 및 전통시장 관련 - 2024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연수 결과보고

## I 개 요

- 출장목적 :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규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 및 초고령사회 진입 전 일본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
- 기 간 : 2024. 9. 23.(월) ~ 9. 28.(토) [5박6일]
- 출장국가
  - 일본(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군마, 도쿄)
- 출장인원 : 8명(의원 5, 직원 3)
  - 의 원 : 전승일, 임성화, 김균호, 오미섭, 윤정민
  - 직 원 : 김희수, 서지우, 이근혁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광주서구 의회	의장	전승일	연수 총괄
2		의원	임성화	연수 추진 계획 작성
3		의원	김균호	소각장 활용 자료 수집
4		의원	윤정민	전통시장 자료 수집
5		의원	오미섭	노인복지 시설 자료 수집
6		직원	김희수	연수 일정 작성
7		직원	서지우	연수 자료 수집 및 수행
8		직원	이근혁	연수 자료 수집 및 수행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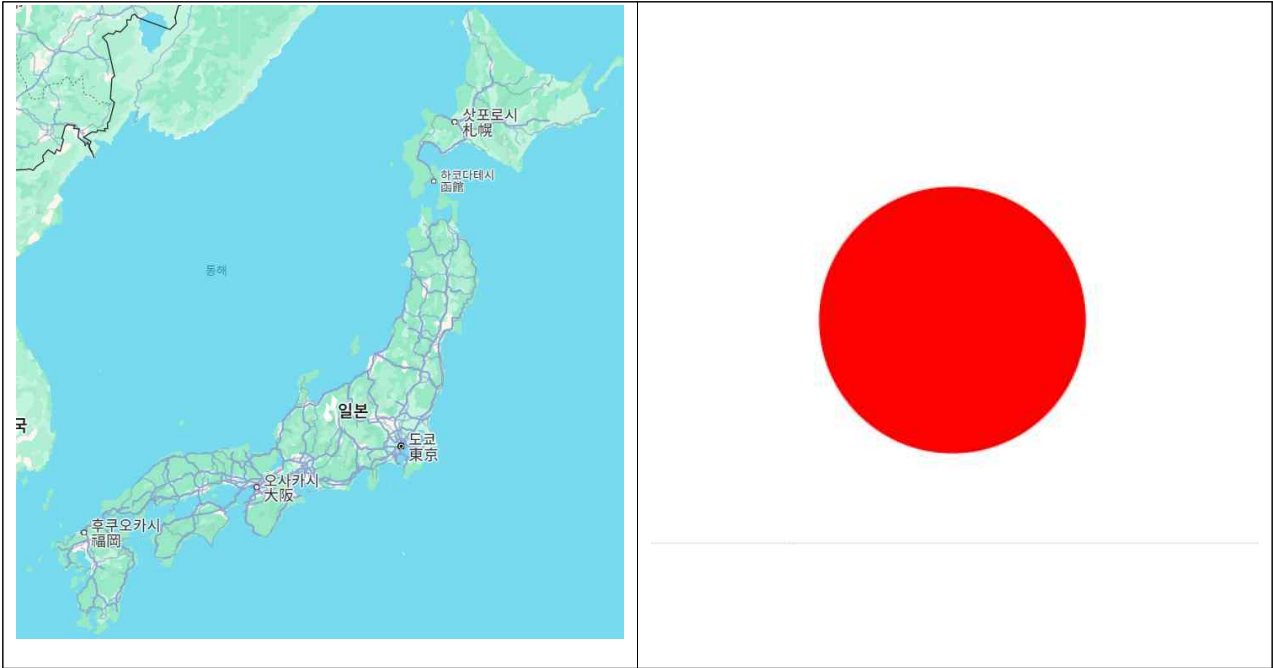
-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정책 개발
  - 주민기피시설인 오사카와 도쿄의 소각장 두 개소 방문을 통해, 기존 소각장을 관광지와 하고, 노인시설과 접목한 사례를 견학하여 우리 구에 있는 소각장 활성화 및 신규 소각장에 반영할 정책 개발
- 초고령사회 진입 전, 노인복지 정책 반영
  -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견학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 구의 노인 복지 관련 정책 반영
-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오사카의 부엌이라 불리는 구로몬 시장을 방문하여 1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어떻게 지역에서 자리잡고 어떤 전략을 통해 활성화 되었는지 견학한 후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접목하여 정책 개발 추진

○ 주요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및 업무내용	비고
제1일 9/23 (월)	인천	오사카 고베	- 인천공항 집합 후 수속 -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 행복마을 시아와세노 무라 견학 - 오사카 이동	
제2일 9/24 (화)	오사카	오사카	- 오사카 ATC에이지리스센터 방문(사회복지시설) - 마이시마 소각장 방문	시설 관계자
제3일 9/25 (토)	오사카	오사카	- 오사카의 부엌 구로몬 시장 견학	시장 관계자
제4일 9/26 (일)	오사카	요코 하마	- 요코하마로 이동 - 요코하마 마이즈루 WTE 소각장 견학	소각장 관계자
제5일 9/27 (월)	요코 하마	군마	- 하모니히로사와 특별요양원 견학	
제6일 9/28 (화)	도쿄	인천	- 나리타 국제공항 이동 - 인천 도착 후 광주로 이동	

## II 방문국 주요현황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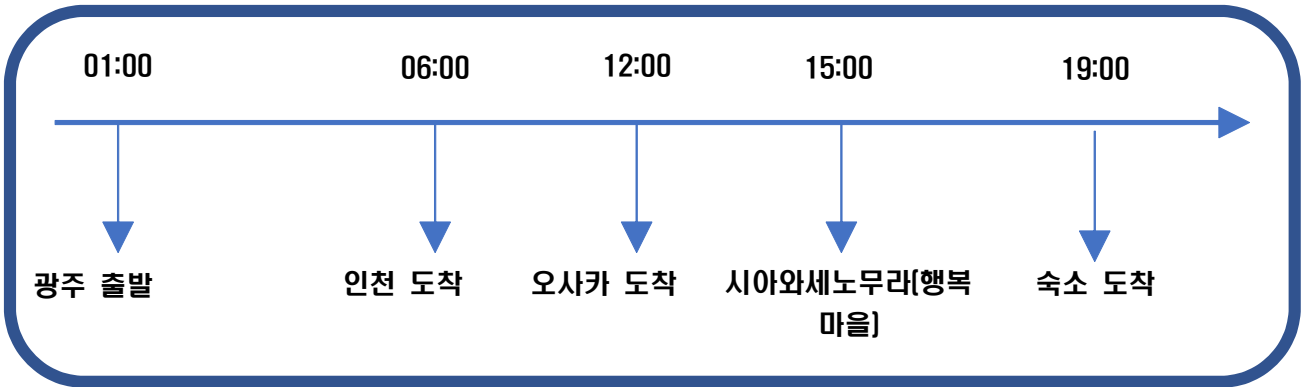


- 수도 : 도쿄
- 인구 : 약 1억 2375만만명(2024년 / 세계12위)
- 면적 : 37만 8,000km<sup>2</sup>(2022년 / 세계62위 / 한반도 약 1.7배)
- GDP : 4조 6,169억 달러 (2023년 / 세계 3위)
- 주요언어 : 일본어
- 종교 :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 행정구역 : 1都 1道 2府 43縣(총47개)
- 특징 : 일본(日本)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입헌군주제 국가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동해에 면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동중국해의 타이완 섬 인근에서 북쪽의 오후츠크해에 이르는 일본 열도에 자리한다. 일본 열도의 본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충

네 개의 큰 섬으로 구성된다. 지질학적으로는 일명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위에 놓여있어 지진, 쓰나미, 화산 분화 등의 자연재해가 빈발한다. 일본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이자 강대국 중 하나다. 일본 엔은 일본의 거대한 내수와 자산 규모, 선진적 경제 구조, 고도의 미일관계 등에서 오는 안정성 덕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와 함께 세계 4대 통화로도 꼽힌다. GDP는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이며, 국부(國富) 규모 3위, 대외순자산 규모 1위, 주식시장 규모 3위, 외환보유고 규모 2위, IMF 투표권 2위 등 손꼽히는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비서양권 국가 중 최초의 OECD 가입국이자 유일한 G7 회원국이기도 하다.

### III 주요 방문지 결과보고

□ 9월 23일 방문지



#### 1. 시아와세노무라(행복마을)

- 방문일시 : 9월 23일(월) 15시
- 작성자 : 김균호 의원, 의회사무국 김희수
- 주요내용

- 고베시는 1977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전 시민에게 보장하는 목적으로, 전국에 앞서 「코베시민복지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인 「자립과 연대」가 구체적인 시설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 건설된 것이 「행복마을」이다. 모든 시민이 깊이 교류하고 상호 이해 할 수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장애자의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지원하는 복지 시설과 신록이 풍부한 자연 속에서, 모든시민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도시 공원을 일체적으로 정비한 복합 시설이다. 시정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구상만 약 20년을 거치고, 1989년 4월에 개촌함.

- 고령자나 장애인 등 핸디캡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훈련·개호·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이나 사회참가를 촉진·지원함. 고령자, 장애인, 아동, 부인, 근로자 등 폭넓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상호의 교류, 만남 사업을 추진한다. 고베시의 재택 복지 추진을 중심축으로 정보 제공, 연구, 개발, 상담, 개발 등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녹음이 풍부한 자연 속에서, 웰빙 공원으로서는 모든 시민에게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노동 및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등 관련 분야의 제휴를 도모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행복마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이에 구애 받지 않으며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재충전을 위한 시설로 가득함. 가족 또는 그룹, 단체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숙박호텔이나 회의실, 레스토랑, 매점 등 갖추며 행복마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숙박설비로서는 화실·양실 외, 휠체어에서도 이용 받을 수 있는 양실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용 객실은 전용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다. 캠프장 광대한 자연 속에서, 캠프를 즐길 수 있다. 또, 행복마을의 부지 내에 있는, 온천 시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즐거운 놀이 도구 가득한 놀이터, 테니스 코트, 옥내 수영장, 탁구 등의 스포츠 시설, 일본정원, 자연 보도,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시아와세노무라는 우리나라 말로 ‘행복촌’이라는 뜻이다. 시아와세노무라가 위치한 고베시에서 ‘자립과 연대’라는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자 복합시설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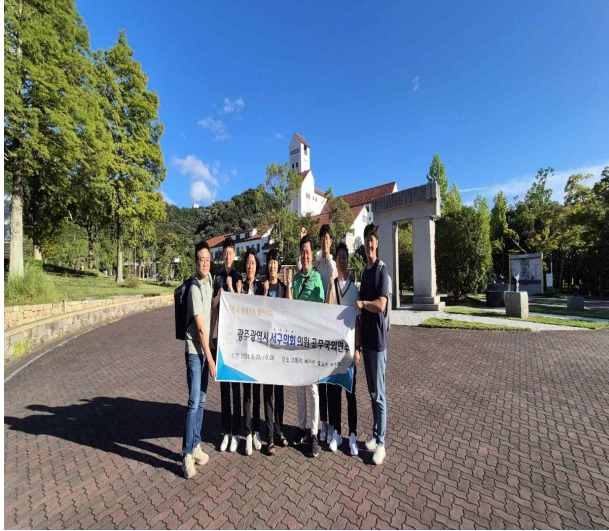
- 시아와세노무라를 가보면 고베시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정신과 신체 그리고 문화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미래 노인 복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 했었음을 느낄 수 있다.

- 시아와세노무라는 분지 형태의 산 속에 위치해 있으며, 중간 중간 산을 깎아서 현재의 행복촌을 건립했다. 이 안에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촌이 있으며, 병원은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거주 노인들 보러 오는 가족이나 일반 시민들을 위한 호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여가시설 등이 두루 갖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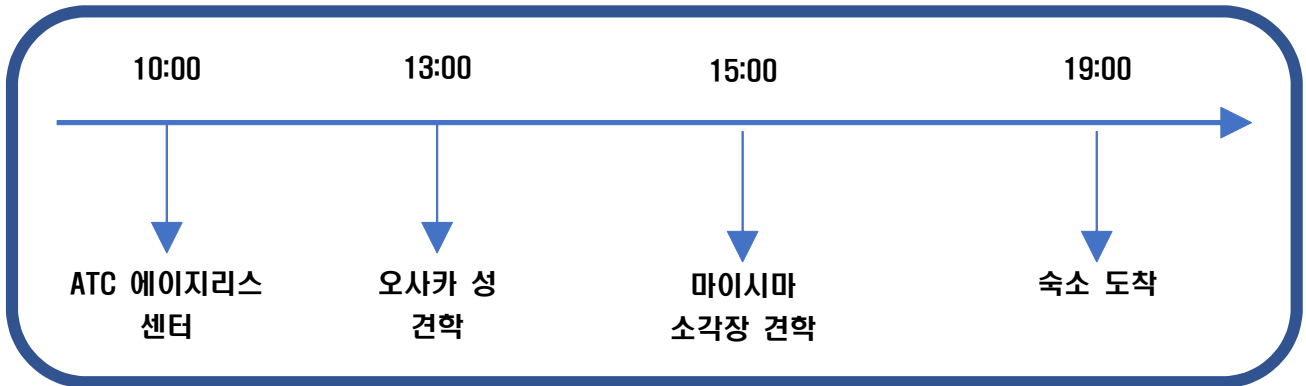
- 시아와세노무라는 일반적인 노인들이 거주하는 실버마을과는 다른 개념이다. 시아와세노무라 안에서는 입주 노인과 일반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시설이 개방되어 있으며, 공원과 캠핑장 여가시설 등이 다양하게 있어, 전국 각지에서 노인 요양과 별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있다.

- 시아와세노무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도 향후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복지대상자가 노인 또한 치매환자이지만, 일반 주민들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고령노인과 치매환자만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노인들이 다른 주민들과 어울림으로써, 노인들의 적적함을 달래고 치매예방에 기여하며, 노인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정책으로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 방문 사진



## □ 9월 24일 방문지



### 1. ATC 에이지리스 센터

- 작 성 자 : 오미섭 의원
- 방문일시 : 2024.9.24.(화) 10:00 (2일차)
- 면 담 자 : ATC에이지리스 센터 견학 담당자(설명자1분/보조1)
- 주요내용
  - 고령친화산업 전시관 ATC에이지리스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실생활 편의시설을 직접 체험
  - 1996년 4월에 개설된 ATC Ageless 센터는, 일본 오사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드센터(ATC) 내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간병, 복지, 건강 관련 보조기구 상설 전시장
  - 연령이나 핸디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가해, 언제까지나 풍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시 하는 종합 생활 제안관

- 관련 분야의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오사카시와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드센터 주식회사에 의한 실행위원회에 의해 개설되었고, 후원단체는 오사카시의 상공회의소, 경제계 단체, 의료, 사회복지, 의료공학 단체 등 폭넓은 단체들이 포함
-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5,000 m<sup>2</sup>로 일본 최대 규모.
- 전시장에는 이동기구, 간병용 침대와 욕창 방지용품, 입욕용품, 이동식 화장실, 화장실용품, 커뮤니케이션 기구, 일상생활용품, 주택설비, 건강기기류, 치유 로봇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
- 단순한 제품 전시와 더불어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체험코너와 제품 소개, 판매도 지원
- 전시된 제품들을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 지원을 받는 이용 당사자들도 편하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도록 고안

###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의원들이 견학왔기에 담당자가 더욱 세심한 설명과 관심을 표명함
- 엄청난 규모뿐만 아니라 개호, 간병, 복지, 건강분야의 다양한 제품전시와 편의품을 보고 일본의 장애인과 고령자,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삶이 한층 나아질 것 기대

- Ageless(에이지리스)라는 이름처럼 나이나 장애로 인한 제약을 잊게 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넓은 공간에 분야별로 깔끔하게 배치됨
-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품의 개발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존엄한 삶이 지켜지는 역할 기대
- 비싼 가격으로 인해 접근성이 우려되지만, 제품 사용으로 인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간병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일본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됨
- 인간의 존엄한 삶에 기반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설명하는 모습과 달리, 우리의 보조기기 상품설명 전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물건이 쌓여있고 시끄러운 소리와 혼잡함 속에서 전시되는 듯함. 사람을 집중시키고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

## 주요 질의 및 답변

질의1	ATC에이지리스 센터는 어떤곳인지?
답변)	<p>-ATC에이지리스 센터는 개호, 복지, 건강에 관한 일본 최대 상설 전시관.</p> <p>-남녀노소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제품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p> <p>-장애인과 노령자의 사회참여 지원.</p>

질의2	ATC에이지리스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	-이동기구, 간병용 침대와 욕창 방지용품, 입욕용품, 이동식 화장실, 화장실용품, 커뮤니케이션 기구, 일상생활용품, 주택설비(맞춤형 안전주택), 건강기기류, 치유 로봇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
질의3	다양한 제품들의 사용법문의?
답변)	- 전기 휠체어(속도조절) - 간병용 침대(앉고, 눕고, 일어서는 등의 모든 체위를 만들어주는 침대) - 자동의자(환자 혼자 일어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 의자) - 심리치료 로봇 등

## 방문 사진



## 2. 마이시마, 요코하마 츠루미 소각장

○ 작성자 : 임성화 의원, 의회사무국 김희수

○ 방문일시 및 면담자

- 마이시마 소각장 : 9월 23일 15시 방문, 시설 책임자 면담

- 요코하마 츠루미 소각장 : 9월 26일 15시 방문, 직원 히라야마 면담

○ 소각장 견학 추진 배경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확정에 따라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 됨,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쓰레기를 소각 하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를 견학하여 우리 구 및 광주광역시에 반영하고자 견학을 추진하게 됨

○ [마이시마 소각장 주요 견학 내용]

- 오사카 바다에 떠 있는 인공섬 마이시마 위에 세워진 소각장으로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델트바서(1928~2000)에 의해 건축, 지난 2001년 가동을 시작

- 마이시마 공장은 2001년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예술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훈델트바서의 설계로 완성. 정식 명칭은 “오사카광역환경시설조합 마이시마 공장” 이라고 칭함.

- 오사카 대표 관광지인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에서 2km 떨어진 마이시마소각장은 자연환경과의 공생을 목표로 외관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임.

마이시마 공장에도 산책로와 녹지, 외벽과 옥상 녹화 등 많은 녹색이 심어져 있어 자연과의 공존을 목표로 건설, 20여 년이 지나면서 초목 수목은 이미 건축과 일체화된 것처럼 보일 정도임.

- 자연과 일체화되는 곡선적인 디자인과 불이나 물을 표현한 컬러풀한 채색이 특징.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약 1만 7,000평방미터에 이르는 거대 건축물에는 쓰레기 소각 시설과 대형 쓰레기 파쇄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자연계에 인공적인 직선은 없다”는 생각에서 훈델트바서의 건축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곡선과 소용돌이 무늬가 많이 도입되어 있음. 또한 불꽃과 물을 표현하는 풍부한 색채 표현과 장식성이 매우 특징적임.

-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만 900℃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 연소함으로써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기준치 1(※)또는 최소 수치인 (0.00015)까지 억제하여 무해화하여 방출하고 있음.

- 하루 900t의 대량 쓰레기 쓰레기 처리 설비 가동 중

마이시마 공장은 오사카시, 야오시, 마쓰바라시, 모리구치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처분을 담당하는 6개의 공장 중 하나. 쓰레기 처리 능력은 하루 약 900t! 전국적으로 봐도 규모가 큰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9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소각 처분. 쓰레기를 계속 태움으로써 연소에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고 있음.

- 대형 쓰레기 파쇄 처리 설비에서는 쓰레기를 분쇄하고 금속을 분리하여 회수하고, 쓰레기 소각 설비에서는 크레인으로 이동하여 태워서 재료 만듦.

쓰레기 처리에 필수적인 이러한 작업은 이제 모두 컴퓨터 제어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도 9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연소를 유지하려면 공장 직원의 모니터링과 수동 조정이 필수적임. 기기 정비와 점검도 공장 직원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신 시스템과 사람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융합되어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음.

- 쓰레기를 태움으로써 생기는 에너지로 연간 약 1억 kWh를 발전시키고 있음. (이는 일반 가정의 사용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약 3만 가구분에 해당된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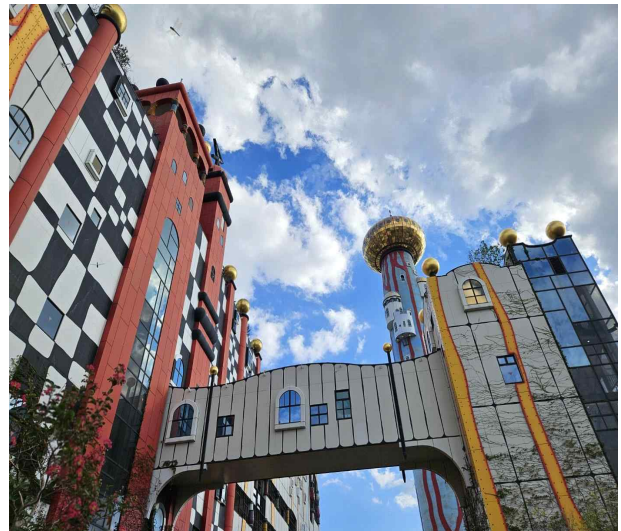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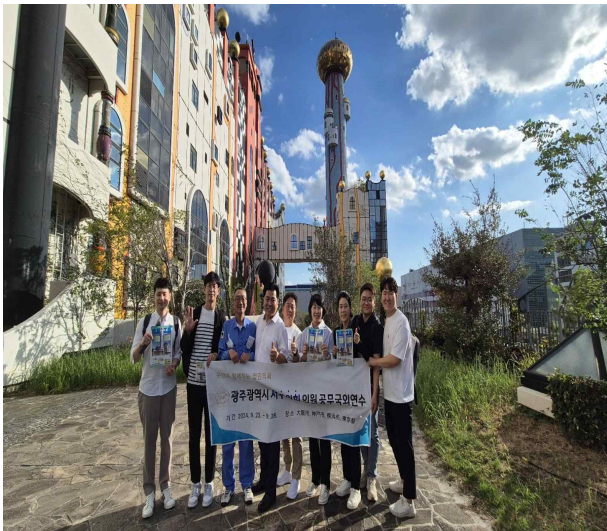
- 더불어 공장내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발전으로 조달되고 있어, 남은 전력을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도 올리는 서클러 이코노미(순

환 경제)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연간 6억 엔(64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소각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탓에 주민 기피시설로 취급받기 일쑤지만, 일본 소각장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며 주민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더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쉬운 쓰레기 소각장이지만, 그의 뛰어난 디자인은 쓰레기 소각장의 이미지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매력이 넘침, 마이시마 소각장 녹지공간은 평일에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방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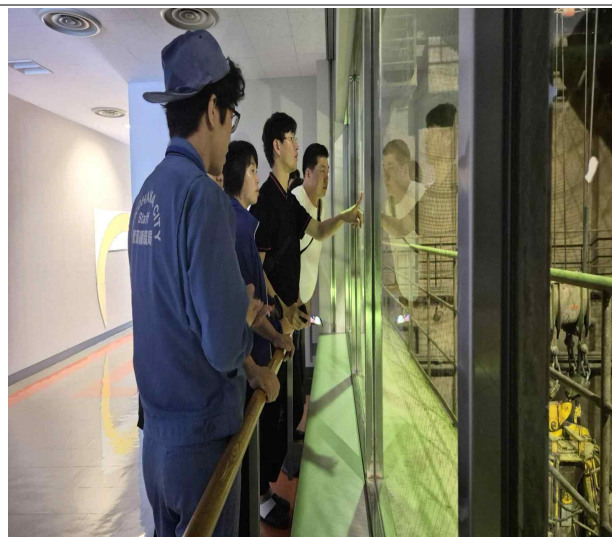
○ [요코하마 츠루미 소각장 주요 견학 내용]

-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모델도시'인 요코하마시는 2000년대부터 'G30플랜'과 '3R 운동' 등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기업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요코하마시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0년만에 시 전체 쓰레기 배출량을 4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요코하마시는 현재 370만명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가나자와, 츠루미, 아사히 등 지역내 소각장 4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그중에서도 츠루미 소각장은 1990년에 요코하마시 직영으로 설립되어 하루에 800t의 생활폐기물을 오랜 기간동안 처리하고 있다. 요코하마 츠루미 소각장의 특징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한 증기를 요코하마 수질관리센터, 사회복지시설에 보내, 시에서 온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전력을 소각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요코하마 지하철 보내거나 지역 전력회사에 매각하여 연간 80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 방문 사진



## [우리 구 및 광주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 대형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종량제 쓰레기(하루 발생량 450t)만 광주광역시 광역 위생 매립장(양과동)으로 보낸 후 일부는 직매립, 일부는 고품질폐기물연료(SRF)로 만들어 나주 난방공사에 매각하여 처리 함

###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일본의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가 타는 쓰레기(가연성)인지 안타는 쓰레기(비가연성)인지만 구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하얀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 집’ 앞에 배출함, 일본의 쓰레기 회수 차량은 각 도로, 골목길 크기 맞게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있으며, 매일 쓰레기를 회수하여 각 지역에 맞는 소각장으로 이동함. 일본과 같이 소각의 장점은 매립량이 85%가 감소하고, 침출수 농도가 98% 감소, 악취와 온실가스 발생이 감축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에 따라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될 예정으로 각 시·도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임. 직매립 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수분 제거가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연성 쓰레기의 별도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교육이 필요함. 생활쓰레기 배출 해당 부서에서는 소각장 건립 후 가정의 쓰레기 배출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소각장 건립 입지를 신청 받고 있음. 광주시에서 소각장 건립 시 마이스마 소각장의 관광명소화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 그리고 타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소각장 건립 시 기능적으로 완성도 있게 건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대표성을 갖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접근이 필요함

- 소각장 내부에는 학생들을 포함한 방문객을 위한 체험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소각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각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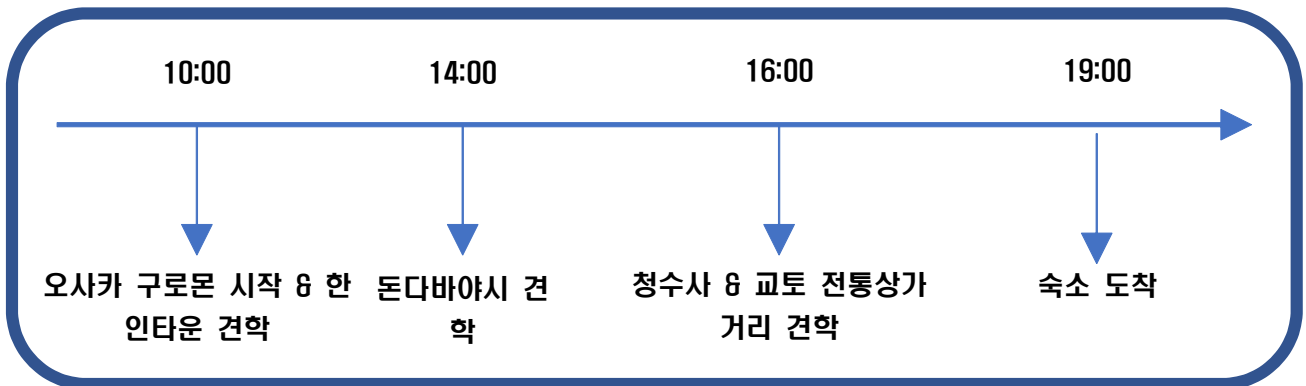
- 무조건 소각이 아닌, 자원의 재활용이 답임. 소각장으로 수거된 가구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은 건물에 배치,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 쓸 수 있게도 함. 최근에는 인근 주민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추첨을 거쳐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치평동은 탄소를 줄이는 감탄마을(자원순환대표마을)을 답게 ‘자원순환재활용장터’를 선도적으로 정례화하여 시행해볼 것을 제안함. 향후 광주 내 소각장 건립 시 거점별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장터가 필요함.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쓰레기 중 30~40%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임..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소각장 확충도 불가피하지만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서구만의 정책이 시작되어야 함.

- 단순 폐기물 처리목적의 소각시설이 아닌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열을 회수하여 에너지 · 자원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증기나 전력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공원 및 스포츠 시설을 가미한 소각장을 건설하여 주민들이 소각장을 찾아오게 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함

## 주요 질의 및 답변

질의1	마이시마 소각장 건립 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 하였는지?
답변)	- 당초 오사카 시청에서 소각장 건립 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소각장 부지를 해안의 매립지로 선정하였고, 부지를 스포츠 특화섬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음.
질의2	마이시마 소각장의 장점은 무엇인지?
답변)	- 예술가 프리덴스라이히 훈델트바서의 디자인이 가미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친화적이고,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질의3)	마이시마 소각장 운영수익이 얼마이며, 소각 처리 용량은 어떠한지?
답변)	- 마이시마 소각장은 하루에 생활폐기물 약 900t을 소각할 수 있으며, 소각열을 활용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연간 80억원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질의4)	마이시마 소각장으로 인한 방문객은 몇 명인지?
답변)	-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마이시마 소각장이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여 연간 1만6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질의5)	츠루미 소각장의 운영 주체는 어디이며, 운영 수익이 있는지?
답변)	- 요코하마 시 직영으로 츠루미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음. 소각열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 판매로 연간 8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질의6)	츠루미 소각장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답변)	- 생활폐기물 소각열에 사용되고 나온 증기를 요코하마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보내 온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 온천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 9월 25일 방문지



### 1. 구로몬 시장

○ 방문일시 : 2024. 9. 25.(수) 10:00

○ 작성자 : 전승일 의원, 윤정민 의원, 의회사무국 서지우

○ 견학 추진 배경

- 2000년대 이전 20여 개 점포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구로몬 시장이 즉석식품과 신선식품 위주의 특색있는 시장으로 변모하여 오사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전통시장 테마화 사업 성공사례 견학하여 우리 구의 전통시장에 접목하고자 추진하게 됨

○ 주요내용

- 오사카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구로몬 시장은 2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600m 길이에 200여개의 점포가 자리잡고 있다. 구로몬은 ‘검은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엔묘지라는 절에 있는 검은색 문앞에서 상인들이 생선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

장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구로몬 시장은 관광지와 의 접근성을 이용해 더욱 활성화된 시장이다. 다양한 간판과 깨끗한 시장바닥, 관광지 한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통로 천장이 아케이드 구조로 되어 있어 비와 햇빛에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다. 식당, 해산물, 각종 소분되어 있는 과일, 간식거리들, 마트, 마츠모토키요시 등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다. 재래시장의 느낌보다는 예약도 가능한 유명한 맛집도 많고 신선하고 다양한 먹거리,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그리고 여행객을 사로잡는 기념품까지 일반시장이라기 보단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한 종합쇼핑몰의 형태를 띄고 있다.

##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전승일의원]

- 볼거리·먹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테마화 사업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테마를 즐기고 소비하려는 젊은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 양동전통시장 구 6번로에 전략적인 테마화 사업 구축 추진
- 전통시장 내 흰색 실선을 그어 진열대를 가지런히 비치함으로써 균일하고 안정적인 보행로 확보 추진
- 건어물시장에 정비 완료된 간판 정비사업을 나머지 6개 상인회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7개 상인회가 통일된 간판 재정비 구축 추진

## [윤정민의원]

- 오사카의 구로몬시장은 관광지 가까이에 있으면서 일본문화를 함축해 놓은 상점들과 식당들이 포진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여행객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템이 많고, 시장이라는 느낌보다는 관광지의 느낌이 많았다. 특히 상품의 가격표를 눈에 띄게 표시해 놓고 있어 외국관광객들도 쉽게 가격을 확인하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어 쇼핑하기 용이하였다.

- 우리 서구의 100년 시장, 양동시장에 접목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양동시장의 모태인 큰장터, 작은장터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 5.18 주먹밥 나눔의 역사적 현장, 전남방직·일신방직과 연결되는 발산마을, 근거리에 있는 광주학생운동 기념역사관등을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시장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또한 양동시장 통닭, 수산물(홍어), 건어물의 특색을 더 살리고 여행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소분판매와 가격표시제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 시장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바닥정비와 수산물 취급 구간의 배수로 정비·관리 등 시장 환경정비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으로써의 기능 뿐만아니라 타지역 주민들도 광주에 오면 꼭 찾는 관광지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하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모색해 본다.

# 방문 사진



## 2. 돈다바야시

○ 방문일시 : 2024. 9. 25.(수) 14:00

○ 작성자 : 김균호 의원

○ 견학 추진 배경

- 걷기좋은 서구에 접목할 수 있는 상권활성화와 소통테마길의 또 다른 유형을 참고하고자 방문을 추진하게 됨.

○ 주요내용

- 일본 오사카 부에 있는 작은마을 돈다바야시는 에도시대의 전통 가옥이 잘 유지되고 조성된 지역으로써 전통 가옥 마을에 일부 상권이 자리를 잡아 외부 관광객이 대도시 오사카를 벗어나 시골 마을의 정취와 여행에서의 힐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임.

\* 에도시대 : 에도 시대 혹은 도쿠가와 시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가 일본을 통치한 1603년부터 1868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 총평 및 구정 활용 방안

- 오사카 근교에 위치한 돈다바야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다.
- 교토나 나라처럼 유명한 관광 도시는 아니지만, 일본 에도시대의 전통 가옥이 민가로 잘 정비되어 마치 한국 전주시의 한옥마을을 연상케하는 특색있는 마을로서, 전통 가옥 중간 중간에 상권이 조성되어 있어, 한적한 시골마을의 정취를 느

끼는 동시에 마을 전통 가옥의 찻집에서 차 한잔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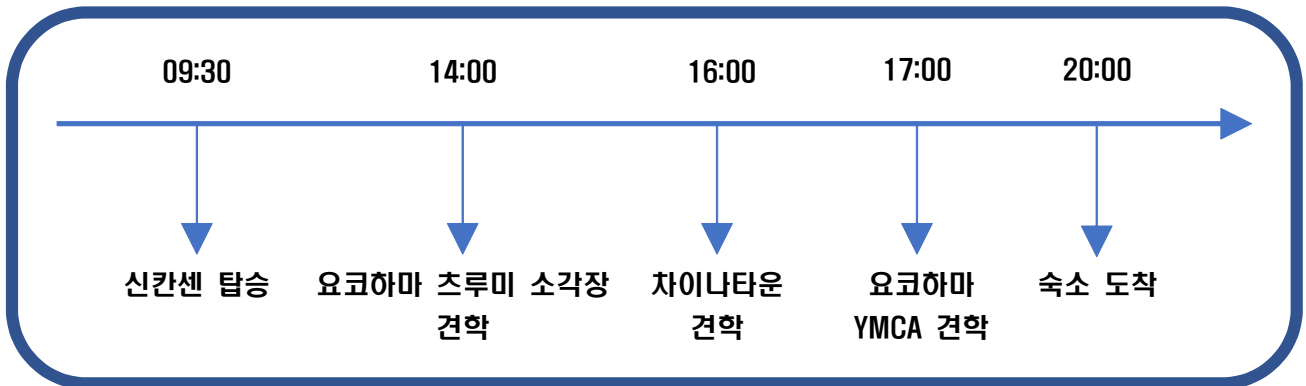
- 마을에 도로와 상하수도가 잘 정비되어있고, 전통 가옥이 잘 정비되어 있어 마치 프랑스의 소도시의 고딕양식의 건축물을 보며 느끼는 건축물의 통일성을 엿볼 수 있어 광주 서구에도 유사한 서창 마을에 새로운 신축 건물보다는 한국 전통 가옥으로만 건축하여, 마을을 테마화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방문 사진





## □ 9월 26일 방문지



### 1. 요코하마 YMCA 견학

- 방문일시 : 2024. 9. 26.(목) 4일차 17시
- 작성자 : 임성화 의원
- 면담자 : 요코하마 YMCA 사무총장 +++
- 주요내용

-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일제강점기 민족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 섰던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 중 하나이다

- 요코하마 YMCA는 광주 YMCA와 오랜기간 동안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YMCA 지회로, 상호간에 직원을 파견하고, 청소년해외자원활동, 국제구호기금 모금 및 전달 등 협력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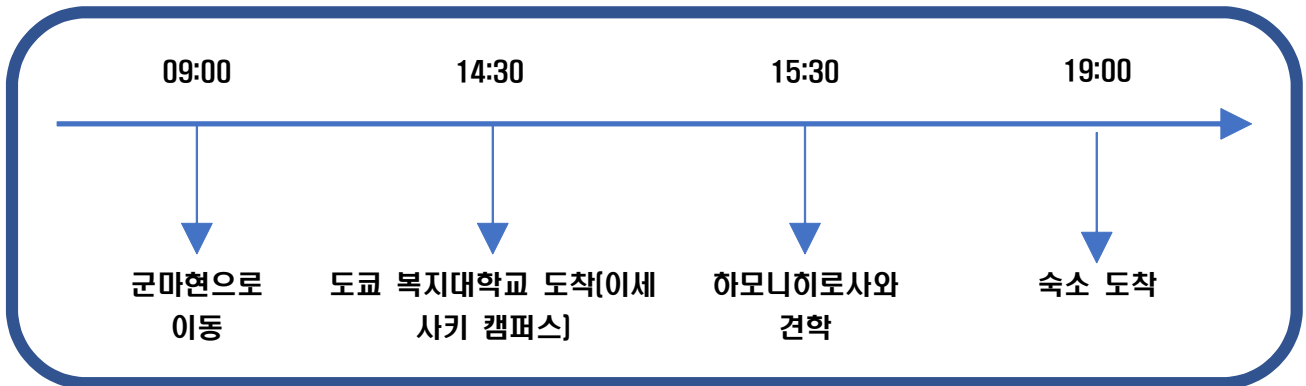
- 요코하마 YMCA는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봉사단체를 구성하여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광주 YMCA와 관계가 깊은 요코하마 YMCA 지회를 방문하여 사무총장 +++과 면담, 광주서구의회와 우호교류 및 협력에 관련 미팅을 추진함

## 방문 사진



## □ 9월 27일 방문지



### 1. 사회복지법인 하모니 히로사와

○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이근혁

○ 방문일시 및 면담자

- 2024. 9. 27.(금) 5일차

- 동경복지대학 이세사키 캠퍼스 김정님교수, 히로사와 관리직원

○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인 하모니 히로사와 운영 서비스 소개

- 하모니 히로사와는 군마현 키류시 히로사와초에 위치하여,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인이다.

- 하모니 히로사와는 우리나라 요양원과 유사한 특별 양호 노인 홈이 있으며, 우리나라 주간보호 시설에 해당하는 데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단기간 노인 보호가 가능한 단기체류, 방문 간호 서비스인 자택 개호 지원 사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특별 양호 노인 홈 이용자의 정원은 50명이며, 하모니 히로사와 서비스 전체 이용자는 대략 100명 정도이다.

- 요양 시설에는 일반적인 요양보호사 외에도 물리치료사, 간호사, 기능훈련 강사, 치과위생사, 파트타임 의사, 영양사 등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 이벤트성 행사도 관리한다.

- 케어하우스는 우리나라 3~5등급의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로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 및 건강 케어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한다. 케어하우스는 비용을 지불하면 기간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으나, 연금 소득에 따라 차등 비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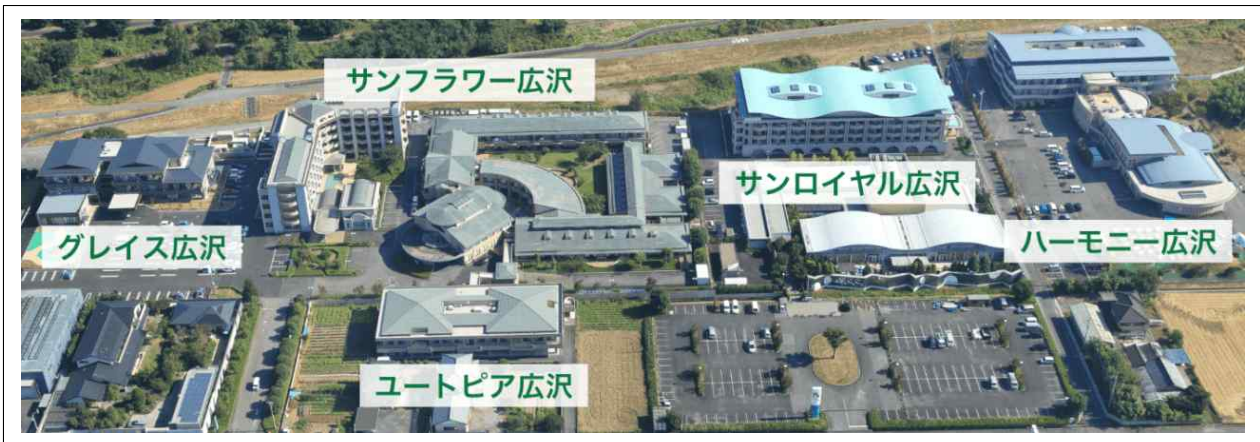
- 키류시에서 위탁받은 지역 포괄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호보험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개호 예방 등 다양한 제도나 지역 자원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주거 형태는 공동 주거 구역인 라운지에 개인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노인들 간의 소통을 고려하였으며, 개인실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또한 시설 내에 산책로가 있어 산책이 필요한 노인들은 내부 산책로에서 운동할 수 있다.

## ○ 총평 및 구정 활용방안

- 하모니 히로사와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넓다는 점이다. 넓은 부지의 확보는 산책로, 의료시설 등 다양한 노인 편의시설을 입주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넓은 주차장 및 여가 공간을 마련하여 가족 만남의 기회 또한 쉽게 제공한다.

- 요양병원, 요양원을 생각하면 병원 이미지가 떠오르는 우리와는 달리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있어 삭막하지도 않다.



- 내부 또한 노인 시설 박람회에서 본 편의 디자인을 적극 사용하고 있었다. 그저 전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일본의 노인 관련 산업 대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복지 서비스의 보편화와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복지 정책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

-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목욕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노인이 늘어난다고 더 많은 목욕차량을 운행하면 증가하는 예산과 인력을 감당할 수 없다. 시설에 와서 목욕 서비스를 누리는 방법이 노인 복지 서비스의 보편화에 기여한다.

- 모든 것을 무료로 다해주는 노인 복지는 지속 불가능하다. 연금 수익에 따른 차등 비용 부담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차등 비용 부담을 통한 수입 증가는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의 자부담을 증가시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 국가와 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복지에서 스스로가 준비하는 노인 복지로의 인식전환이 고령화 시대의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노인 복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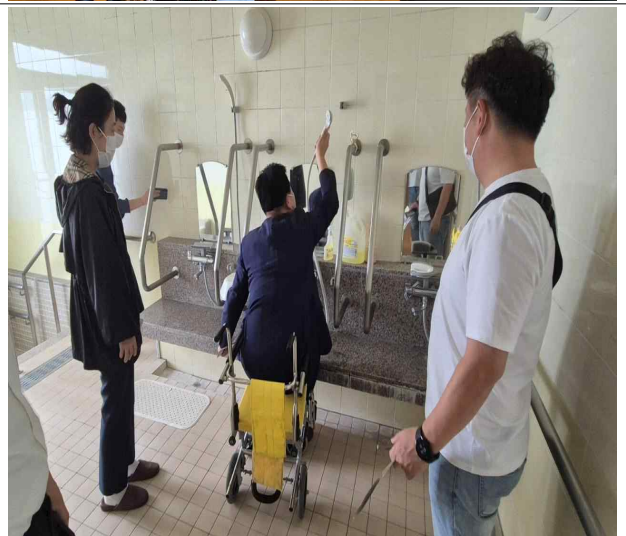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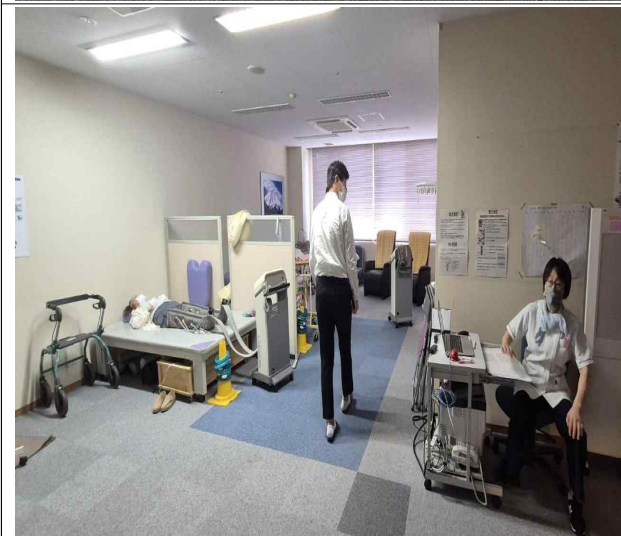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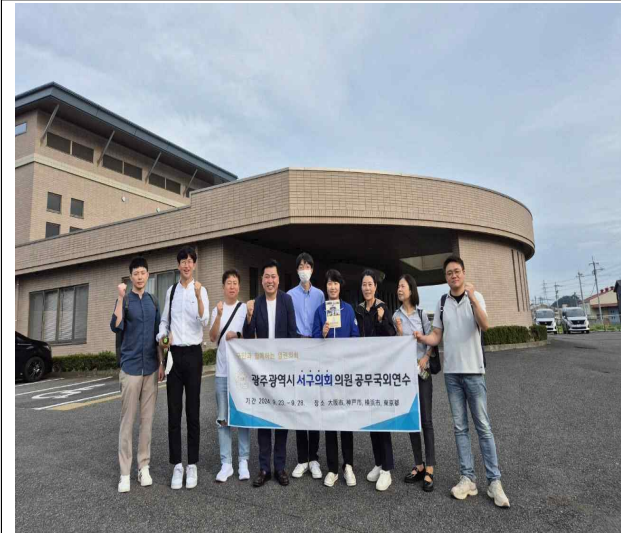
- 우리 지역 또한 노인 복지 시설 단지 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하모니도 근처에 4개의 노인 시설이 모여서 단지를 이루고 있다. 복지 시설의 집약을 통해 노인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산책로 등의 공동 조성을 통한 대규모 시설의 유치를 도모하였으면 한다.

- 또한, 당장의 요구에 미래의 복지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단순히 제공하는 복지에서 스스로 대비하는 복지로의 인식 전환이 될 수 있게 자부담을 정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도모하였으면 한다.

## 주요 질의 및 답변

질의1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모니 히로사와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시(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인이 건물을 완공하고 운영하는 형태이다.</li> <li>- 케어하우스는 우리나라 3~5등급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입주 가능하며, 기간은 무제한이다. 케어하우스 입주 비용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있다.</li> <li>- 서비스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li> </ul>
질의2	시설 이용 정원은 어떻게 되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모니 노인 홈의 정원은 50명이고, 전체 서비스 이용자는 대략 100명 정도이다. 요양보호사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10여명 근무하고 있다.</li> </ul>
질의3	이동 목욕차(이동 목욕서비스)가 있나?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이동 목욕서비스가 없다. 그러나 목욕서비스가 없는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와는 달리, 케어하우스를 이용하는 노인이라면 추가 비용없이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li> </ul>

## 방문 사진



### III 연수 소감문(의장 전승일)

#### ○ 광주 서구의회 의장 전승일 연수 소감문

이번 공무 국외연수는 제9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 후 추진하게 된 첫 국외 출장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연수 기획부터 기관 방문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총 4번의 공식 회의를 거쳤고 그 기간에만 7번의 연수 일정 변경을 하였음에도 불협화음 없이 끝까지 믿고 먼 길 동행해 준 임성화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 서구의 현안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선진사례를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조사와 함께 토의를 이어갔고 심도 있는 의견도출을 통해 미국 동부나 캐나다보다는 일본의 사례가 광주 서구에 접목하기에 더욱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로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광주광역시 5개 구가 당면한 현안인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 두 번째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서구의 노인복지 정책발굴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견학, 세 번째는 광주 서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한 선진사례 견학입니다.

3가지 주제 중 윤정민 의원님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사례 견학을 담당하게 되었고, 우리 광주 서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 국외연수 중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가감 없이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오사카의 부엌이라고 불리는 구로몬시장은 1902년에 개설된 122년 전통 재래시장으로 180여 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구로몬 시장 초입에서는 기존 전통시장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나 시장 중앙으로 진입할수록 시장의 특색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구로몬시장은 신선식품과 즉석식품에 특화된 시장이었고 1인분씩 소포장 된 즉석식품과 함께 이용객 편의성이 극대화된 설비 구축으로 그 차별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2만여 명의 이용객을 끌어들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관광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구로몬시장에는 즉석 초밥, 장어구이, 군밤, 와규 꼬치구이, 어묵 튀김, 타코야끼, 10엔빵, 회덮밥, 참치, 돈카츠, 메밀국수, 과일도시락, 햄버거, 화과자, 모찌, 녹차아이스크림, 과일음료, 사케, 맥주 등 갖가지 먹거리가 1인분씩 소포장으로 정찰제 가격과 함께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를 상점 안이나 시장 거리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맛보고 즐기는 모습은 먹거리 축제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이고 이는 관광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를 즐기기 위해 관광객들은 흔쾌히 먼 길을 와서 지갑을 열었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등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잠재된 전 세계 신규 이용객의 방문을 부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 20여 개 점포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구로몬시장이 즉석식품과 신선식품 위주의 특색있는 시장으로 거듭나며 도톤보리와 더불어 오사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난 데에는 이용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통시장 테마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로몬시장 정중앙에는 나무젓가락과 음식을 담는 그릇을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었고 이는 전담 미화원에 의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킹크랩, 생선류 등 갖가지 수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스티로폼 상자에 비닐을 씌워 얼음을 채워놓은 덕분에 바닥에는 물기가 없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에는 대리석을 깔고 보행로 양쪽으로 흰색 실선을 그어 각 상점의 진열대가 일렬로 가지런히 비치게 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4m 폭의 동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통행이 용이했습니다. 천장에는 580m 길이의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 내에는 무료 WIFI가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인쇄된 안내 소책자가 비치되어 있어 처음 방문한 이용객이라도 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광주 서구청에서도 전통시장에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등 갖가지 하드웨어 구축 사업들을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이용객들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함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통시장에 현대화 사업이 완벽하게 구축됐다 한들 백화점 및 중대형쇼핑몰과 시설 부분에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가격경쟁력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통시장에 예산을 지원했다 한들 밭과 과수원을 매년 통째로 선매입하여 박리다매로 납품하는 대형마트와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통시장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드러내고 우리 고유의 색을 입혀 우리의 전통문화를 판매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세대 간 신구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류되는 곳이 전통시장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1~2회 양동통맥축제 행사를 통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에 환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축제 현장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광주 서구도 예산 지원과

더불어 상인회의 지원 덕분에 2주간의 양동통매축제를 훌륭하고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었지만 오사카 구로몬시장은 1년 365일이 축제 현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광주 서구도 일시적인 행사성 예산집행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시장 테마화 사업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건어물시장은 양동전통시장에서 유일하게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통일된 간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미관 개선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7개 상인회가 통일된 간판으로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공원에 가면 포장마차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저녁 7시 이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업 중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지만 포장마차라는 테마는 젊은 층의 고객을 이끌었고 특유의 분위기와 운치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테마를 즐기고 소비하려는 젊은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양동전통시장 구 6번로에 전략적으로 테마화 사업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 6번로에 양동전통시장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오사카 구로몬시장의 먹거리 체험 문화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술을 잔으로 팔고, 음식도 소포장하여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즐

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구 6번로 300m 구간에 전동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맑은 날씨에는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도록 개방하고, 눈과 비가 오는 날에는 아케이드를 닫아 날씨의 제약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서구청 경제과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후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전통시장 테마화 사업을 기획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이 저비용으로 입점하게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양동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생 현안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III 연수 소감문(윤정민 의원)

#### ○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의원 연수 소감문

[노인들이 일하는 나라 그리고 관광 일본]

-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공항 노동자들의 나이였다. 인천공항에서는 젊은 세대가 출국 심사 시 짐을 검사 하였다면 일본 간사이공항에서는 안내인부터 짐을 검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었다. 일본은 기대수명이 84세이며, 2023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9.1%로 초고령사회이다. 90년대 초 일본의 황금기가 지나면서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인구는 줄어들어 노동력의 부족을 노인들이 다시 채우는 모습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지속된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는 줄어들었고, 발달된 의료 등으로 노인인구는 늘었다.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로 불리는 1955 ~ 1963년생들이 그동안 근무했던 산업현장에서 퇴직하였으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노인들이 일본과 같이 다시 일을 하러 나오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 노인들에게 예산 지원을 통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게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 스스로 빈곤을 해결하고 나라의 부족한 노동력도 제공받는 노인 일자리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이번 연수에서는 일본의 전통시장과 거리가게를 다양하게 방문하였다. 코리아타운, 구로몬시장, 혼마치역 시장가, 교토 정통상점 거리, 도톤보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리가게 등 여러군데를 방문하면서 우리와 몇가지 다른점, 그로인한 배울점이 있었다. 크게 보자면 상점, 상권의 관광화이다. 동네주민, 지역주민만으로는 시장활성화에 성공할 수가 없다. 일본의 시장과 상점은 내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주민 그리고 타국가 관광객들을 사로잡으려는 고민과 노력을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본의원은 연수기간 동안 고민하였다. 그에 대한 답은 먹을거리와 볼거리이다. 일본의 시장과 상점은 볼거리, 즉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리고 관광지와 지하철등 교통편을 편리하게 하였으며,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먹을 간단한 음식들이 많이 있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깨끗함이다. 어느 시장을 가나 모두 깨끗했다. 이 3가지 요인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재방문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서구 관광 활성화,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본의원 또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집중해서 정책을 개발해보고자 한다.

### III 연수 소감문(오미섭 의원)

#### ○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의원 연수 소감문

- 이번에 진행된 일본연수는 오랜시간 걷고 멀리 이동하고 많은 것을 보고 온 녹록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복지 부문에 관심이 많은 터라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일본의 복지정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비교하고 싶어 뻑뻑한 일정들을 묵묵히 소화했습니다.

-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이상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노인복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추진된 정책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맞는 대안이 뭘까 생각하는 시간이였습니다.

- 고베시에서 마주한 시와와세노 무라(행복마을)는 안정감과 여유로움, 그리고 세대간의 소통이 존재하는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와 신록이 우거진 공원에서 가족들과 캠핑을 즐기고 체육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고령자와 가족이 편안히 왕래하며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 ATC에이지리스 센터는 노인들을 위한 실생활 편의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전시관이였습니다.

- 현재 광주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소각장 문제로 2곳을 선진 사례를 선택했는데, 첫 번째 사례인 마이시마 소각장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소각장을 관광명소로 만든 사례였고,
- 요코하마 WTE 소각장(요코하마 츠루미 소각장)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위해 소각장과 노인복지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양동시장 활성화를 생각하며 선택한 구로몬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사카의 부엌이라 불리며 재래시장으로서 현재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특색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복지시설을 고민하면서 선택한 군마현 키류시 히로사와초에 위치한 하모니 히로사와는,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양호 노인 홈, 케어 하우스, 지역 포괄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시골의 특별 노인 요양 홈을 방문하여 일본의 노인 복지 및 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 일본의 다양한 복지현장과 시장 등을 돌아보고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의원으로 할수 있는 조례제정부터 꼼꼼히 살펴보며 실현 가능 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III 연수 소감문(김균호 의원)

####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의원 연수 소감문

고베시가 지역사회복지단체와 공익재단을 꾸려 조성한 시와와세노 무라는 병원과 장애인 복지 시설은 물론, 호텔,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여가 시설 등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30여년 전부터 초고령 사회에 따른 늘어나는 복지 및 의료 수요에 대해 대비한 결과물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행복한 마을이 조성되었다. 광주 서구에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복지 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공섬 마이시마에 세워진 조각장은 2001년 준공되었음에도 공해 방지시설과 철처한 악취방지 시설설계 그리고 예술가를 통해 디자인되어 외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함을 주어 혐오 시설을 탈피하고 이제는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은 이곳은 주민과 환경까지 함께 공생하고 혐오시설을 대표 랜드마크로 인식을 전환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돈다바이시의 경우, 에도 시대의 전통 가옥이 통일성 있게 잘 조성되어 오사카의 대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쉼을가지고, 쉬어갈 수 있는 걷기 좋은 마을로써,

마을이 곧 브랜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마을을 거닐면 잘 조성된 도로와 편의시설, 어디를 가더라도 시스템화 되어 있고 체계화 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등,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얻어낸 결과물 중 하나가 선진 행정력이 아닐까 한다.

서구에도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려는 시도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시스템화 된 행정력이 필요해 보인다.

### III 연수 소감문(임성화 의원)

####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의원 연수 소감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GDP 세계4위 일본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광주광역시 서구에 접목할 부분은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료의원과 함께 일본 연수 계획을 수 차례 미팅을 하며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2016년 12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도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2030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해 반드시 광주광역시 내 1개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어디 지역에 소각장이 건립되고,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 불가결한 ‘소각장 건립사업’은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최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도시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년 전 성공적으로 친환경 소각장 건립과 운영 사례가 있는 일본을 연수지로 정하고,대표적인 마이시마 소각장과 요코하마 소각장 두 곳을 방문하게 되었고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 기술)

처음 ‘마이시마 소각장’을 보았을 때 유명 테마파크 같은 개성적인 외관에 첫 번째 놀랐습니다.

산책로와 녹지, 외벽과 옥상 녹화 등 많은 녹색이 심어져 있어 자연과의 공존을 목표로 건설된 까닭인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초목 수목은 이미 건축과 일체화된 것처럼 보일 정도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소각장 건립시 기능적으로 완성도 있게 건립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역의 대표성을 갖을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2001년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예술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훈델트바서의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소각장 외관에는 무수한 창문과 기둥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곳에는 “자연에는 같은 모양이나 색깔의 것은 존재하지 않다” 라는 설계자 훈델트바서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밋밋한 자원회수시설이 아닌,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민들의 탄소중립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학이 있는 설계자 공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성이 있는 소각장 건립에 대한 고민과 고찰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각장 내부에는 학생들을 포함한 방문객을 위한 체험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었습니다. 모형 쓰레기를 크레인으로 수집한 뒤 파쇄기와 선별기를 거치는 공정을 형상화한 체험시설은 마치 인형뽑기 기계를 다루는 것 같아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하루 처리 용량 900t에 이르는 거대 소각시설이지만,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고 관광객과 학생들이 체험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좋은 교육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 소각장이 대표적인 환경 교육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이 함께 필요합니다!

셋째, ‘요코하마 소각장’의 경우 견학 과정을 초등학교 사회과목 현장 활동 프로그램에 포함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법을 익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나 마을별 교육공동체사업과 연계해 자원회수시설 현장 활동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제안합니다.

넷째, 무조건 소각이 아닌, 자원의 재활용이 답입니다! 소각장으로 수거된 가구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은 건물에 배치, 필요한 주민이 가져가 쓸 수 있게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추첨을 거쳐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도심속 시장, 상무금요시장이 있습니다. 치평동은 탄소를 줄이는 감탄마을(자원순환대표마을)답게 ‘자원순환재활용장터’를 선도적으로 정례화하여 시행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광주 내 소각장 건립 시 거점별 자원 재활용물품을 시민들이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재활용장터가 필요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쓰레기 중 30~40%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소각장 확충도 불가피하지만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서구만의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한 광주시청과 서구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 정책 입안 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지시설과 편의를 제공하고, 소각장 가동 이후에도 주민이 안심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일본 소각장을 방문하니,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만 900℃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 연소함으로써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기준치 최소 수치까지 억제하여 무해화하여 방출하고 있어 주민들은 안심하며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와 서구 주민들은 여전히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소각 시설’ 안내,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시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에서도 관심갖고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탄소중립 대표 자치구 실현을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한 조례발의 등 입법활동에도 소홀하지 않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더 꼼꼼히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